

“보육 교직원·주민 위한 문화·예술 나눔”

광주시 아이코리아 ‘문화공연’ 개최
유아교육기관 원장·교사 무대 꾸며
강선미 회장 “새로운 에너지 충전을”

광주 지역 보육 교직원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의 장이 펼쳐졌다.

광주시 아이코리아는 지난 23일 북구 첨단체육공원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다’라는 주제로 교직원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가을밤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광주 5개 구 70여명의 유아교육기관 원장들이 뜻을 모아 2022년 설립한 봉사단체 광주시 아이코리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600여명의 보육 교직원과 주민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공연과 웃음 속에서 따뜻



광주시 아이코리아가 지난 23일 개최한 가을밤 문화공연에서 보육 교직원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아이코리아 제공>

한 지역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문화공연은 광주시 아이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강선미 회장이 직접 참여한 댄스 오프닝 무대를 시작으로 원장 심어팀 ‘아이코리아 파르

벳’의 하모니 연주, 공감문화원의 통기타, 찌디밴드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DIA 원장댄스팀과 교사댄스팀 ‘사이니썸즈’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와 DJ 문대근의 흥겨운 댄스타임까지 계속되며 가을밤을 감동과 웃

음으로 가득 채웠다.

특히 현직 보육교사들로 구성된 ‘사이니썸즈’의 무대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강선미 회장은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육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가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앞으로도 광주시 아이코리아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아이, 교사, 원이 함께 웃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 아이코리아는 캄보디아 어린이집 건립 기부를 비롯해 바자회,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안전무지걸, 과학관 체험행사,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나눔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박선옥 기자



광주시 ‘2025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광주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지역사회가 함께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환영사, 유공자 표창, 기념공연, 특별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최지현·임미란·정다은·김용임 광주시의원, 유승형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시

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윤홍균 원장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회복력과 연결된 중요한 가치”라며 “민선 8기 3대 분야(교통사고·자살·산업재해) 사망자 제로화 운동을 통해 정신보건, 자살예방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주시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장·메세나골프회장배 대회 성료

(사)대동문화재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무안컨트리클럽에서 운영이사사회이사장·메세나골프회장배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조상열 대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성후 운영이사사회 이사장, 김용호 메세나골프 회장, 이용범 대동전통문화대상 운영위원장과 이사 및 회원 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8홀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김진평 회원과 한지연 회원이 각각 남녀 메달리스트를, 조상열 회원과 양금숙 회원이 남녀 신페리우 우승을 차지해 트로피와

부상을 받았다. 경기 이후에는 가수 남궁옥분 공연과 경품 행운권 추첨 등이 이어졌다.

김성후 이사장과 김용호 회장은 “대동문화의 문화활동 실천은 물론, 회원들의 나눔 동참에 감사하다”며 “운영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진목도모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조상열 대표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설립된 재단의 초심을 유지하겠다”며 “적극 참여해주신 회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명진 기자

나주 진산요양원, 미용실 나들이·산림치유 체험

사회복지법인 진산요양원은 지난 24일 생활인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역미용실 나들이 및 산림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경란 팀장, 효요영 사회복지사의 진행으로 여성 생활인 5명이 참여해 나주시 소재 ‘헤어바이나영’ 미용실에서 커트, 염색, 펌 등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어 국립곡성치유숲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숲속 산책과 아로마 오일 만들기, 족욕 체험, 편백 베개 만들기, 손수건 물들이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에는 연탄불고기 백반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김용권 이사장은 “생활인들이 외부 활동을



통해 심신의 활력을 되찾고 스스로 선택·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인 중심의 자율적 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승환 기자

광주·대구교육청 ‘달빛연합 SW융합 해커톤’ 성료

영·호남 지역 간 교육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사회를 디자인할 창·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장이 열렸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이틀간 경남 사천 인제니움에서 ‘2025 달빛연합 SW융합 학생 해커톤’이 개최됐다.

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 중·고등학생 20팀과 대구 중·고등학생 20팀 등 40팀 120명의 학생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학생들은 3명이 1팀을 이뤄 ‘AI와 데이터가 그리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제시된 과제를 분석하고 SW를 활용한 창의적 산출물



을 제작했다.

대회 결과 광주 화정중학교 HIT팀과 대구 비슬고등학교 오레오즈팀이 우수발표팀으로 선정되는 등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오화숙 광주교육연구정보원 원장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씨월드고속훼리, 시설 아동 ‘제주도 사랑투어’

국내 제주기점 항로 1위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보호시설 아동을 초청해 제주도 ‘사랑투어’를 진행했다.

지난 24~25일 열린 이번 행사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씨월드고속훼리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00년부터 매년 이어지며 아이들에게 바다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여행에는 목포시·신안군·진도군 드림스타트와 연계된 아동들이 참여해 킨제누비아호를 타고 선사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아르떼뮤지엄·스카이워터쇼 관람, 갈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랑투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새터민 대상 문화체험 ▲DMZ



인근 파주 초등학생 초청 ▲모교인 경북 함창초 수학여행 지원 등 다양한 교육·문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혁영 회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담양 봉산면 지사協, 취약계층 51가구 반찬 나눔

담양군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취약계층 51가구를 대상으로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봉산면 이음반찬’은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봉산면 지사협의 대표 특화 돌봄사업으로 지역 내 8개 사회단체가 순번을 정해 직접 밑반찬을 조리하고 이웃 가정에 전달하며 안부를 살핀다. 매년 담양애플의 후원금 400만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나눔은 김광현 봉산교회 목사의 전액 기부로 마련됐으며 배추김치·육개장·소고기 장조림·연근조림·파리국추새우볶음·샤인머스켓 등 풍성한 반찬 세트가 준비됐다.



윤재현·진철 공동위원장은 “이웃을 위해 힘써주시는 봉산교회에 감사하다”며 “이런 마음이 지역 복지의 든든한 힘이 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주북구민생경제연구소 개소



광주 북구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주북구민생경제연구소(이사장 송승종·사진)’가 지난 24일 개소식을 갖고 출범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지역 경제 회복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북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의 목표와 핵심과제가 공개됐다.

북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연구소가 꼽은 다섯 가지 핵심 과제는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체계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청년창업 지원방안 마련 ▲북구형 녹색경제(RE100) 실천모델 개발 ▲주민 참여 정책 거버넌스 구조 마련 ▲지역 공동체 중심 협력·상생 기반 조성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소는 ‘장사가 잘 되는 북구, 사람이 행복한 북구’ 실현에 힘을 기울인다.

송승종 광주북구민생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 실질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인공태양 연구시설 전남 유치’

김대중 도교육감 챌린지 동참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전남 유치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전남도와 유관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범도민 참여 캠페인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를 위한 지역 공감대 확산이 목적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대한민국 에너지의 심장! 인공태양을 전남으로!”라는 응원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연구시설의 전남 유치에 힘을 보탤다.

이번 챌린지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시작으로 전남도의회 의장, 교육감, 나주시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는 단순한 과학기술 사업이 아니라 전남의 미래세대가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교육·과학 혁신의 출발점이다. 교육청도 모든 역량을 모아 전남 유치를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인사

경찰청

◇경무관 전보

▲광주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광주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철우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용석

결혼

▲향선(김가페 대표)씨 장남 기영균, 고재남·조병임씨 장녀 세화양=11월1일(토) 오후 6시 소풍컨벤션웨딩 7층 라온제나 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 032-624-7777, 010-8506-0688. ▲신인수(장성 신약국)·정선미씨 차남 희진(논산 참약사다온약국)군, 박승호(이주경제 광주취재본부장)·서미애(서울신문 광주전남취재국장)씨 차녀 세원(대전 건강건강약국)양=11월16일(일) 오후 12시30분 드메르 웨딩홀 신관 지젤홀 1층(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부음

▲김정식씨 별세. 김상곤전(광양제철고 교사)·기근(광주연구원 부원장)·명자·인자·옥란씨 부친상, 박종근(삼도환경 본부장)·강창선(전 우석중학교 교사)·최강렬(라움도시건축대표)씨 장인상=발인 28일(화) 오전 8시30분 광주 천지장례식장 101호(062-527-1000).